

미세먼지 오면 체육수업 못하는 학교 수도룩

광주 초중고 중 39개 학교 체육관 없어 인근학교 더부살이 사학법인인 4~5개 학교 공동 사용... 교육청은 예산 타령

광주 A초등학교 교장은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낀 날이면 방학 중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정규 체육수업도 해야 하는데 학교에는 야외 날씨와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한 체육관이 없기 때문이다.

교장은 "학교법인 내 초·중·고교 4곳이 체육관 1곳을 돌아가며 쓰고 있는데 봄이면 미세먼지, 여름이면 장마와 폭염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정규 체육수업조차 진행할 수 없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A초등학교처럼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광주에 39개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학교인 광주산수초·용산초·북초 등 공립 초등학교 4곳도 학교 체육관이 없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게 끼거나 장마·폭염이 연속된다면 초등생들은 체육

수업 시간에도 뛰어 놀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 315개교 가운데 39개교는 학교 체육관이 없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6곳, 고교 9곳이다. 체육관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는 공사립을 가리지 않지만, 상당수 사립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게 현실이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인근 학교 체육관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산수초가 충장중 체육관을 빌려쓰는 등 4개 초교가 인근 중·고교 체육관을 빌려쓰거나 함께 쓴다.

중·고교로 범위를 넓혀보면, 사정은 더 열악하다.

적은 곳은 2개 학교, 많은 곳은 5개 학교가 체육관 한 개를 공동으로 쓰고 있다. 송원초·송원중·송원고·송원여상·송원여고 등 5개 학교가 모인 송원학원의 경우 5개

학교가 체육관 하나를 함께 쓴다. 동성중·동성여중·동성고·광주여상 등 4개 학교로 된 유은학원 역시 체육관 하나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죽곡학원 소속 금호중앙중·금호고·금과공고·금호중앙여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정이 더 딱한 학교는 공립인 광주용산초와 북초다. 인근에 학교가 없는 탓에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덮치면 심지어 땀별이 쏟아져도 운동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들 2개 학교 학생들은 '3년 안으로 체육관을 지어주겠다'는 시교육청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교단에서는 날씨에 따라 학생들이 체육 시간조차 맡겼 뛰어 놀 수 없는 현실은 시교육청과 사립학교법인 양측 모두의 단일한 대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날씨와 관계없이 학생들은 뛰어 놀 권리, 정규 체육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시교육청과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모두 예산타령만 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체육관 1개를 짓기 위해선

20~30억원이 드는데, 사립학교 측에서는 "재정이 열악해 법인 부담비율(전체 사업비 20%)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시교육청 역시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인근 학교와 함께 쓰고 있다.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달린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측이 체육관 신설을 적극 요구하거나 체육관 건립사업 신청도 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광주 B중학교 교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평균 매주 2~3시간, 많게는 4시간 체육교과 시간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교실수업이 늘어나 신체활동 중심인 체육교과의 본래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교육청이 소극적인 학교법인을 탓하지만 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학생 영당이 차고 무릎위에 앉히고

광주북부경찰, 성추행·체벌 중학교 교사 3명 검찰 송치

여학생의 영당을 발로 차거나 무릎 위에 앉는 등 성추행과 육설·체벌을 한 광주의 모 중학교 교사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등)로 광주 모 중학교 40~50대 교사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사 등은 2017~2018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당을 발로 차거나, 학생 무릎 위에 앉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막대기로 여학생의 신체를 찌르거나 육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중학교 여학생들이 교사

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해 해와 수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를 거쳐 피해를 봤다고 밝힌 학생 10여 명을 조사했고, 이들 일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냈지만 모두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사 3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인 만큼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가명(假名) 조사를 활용하고, 진술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등석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페이퍼컴퍼니'로 수익 빼돌린 한전거래소 간부 징역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하고 한국전력거래소 예산을 빼돌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전기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의 15%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인 B씨의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

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가로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설립한 광고업체는 인적·물적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행사나 홍보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임직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납품·용역 비용으로 쓰거나 사업체 명목에게 제공한 점, 일부를 회사 예산 외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점, 6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SNS에 특정 군수후보 지지 마을 이장 벌금형 선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군수후보를 홍보·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마을 이장 A(64)씨에 대해 벌

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7시 23분께 자신이 개설한 회원 400여 명의 SNS 대화방에 '오늘 유세 현장이다. 군수님 파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유세 현장과 홍보 사진을 게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개나 소나 파는 고구마 판다" 시비 걸고 폭행 30대여 경찰서행



○...용돈마련을 위해 군고구마를 팔던 여고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서행.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34)씨는 지난 14일 밤 10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빵집 앞 인도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B(17)양 등 여고생 2명에게 "개나 소나 다 파는 고구

마를 팔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건 뒤 가슴을 2차례 때리고 머리채까지 붙잡았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으로 한마디 한 것인데, 여고생들이 '방금 뭐라고 했?'며 따지고 들어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량 레미콘 납품

업체 대표 등 42명 유죄

레미콘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관계자 4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성욱)은 15일 사기와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사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현장 관리자 등 27명에게는 각각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7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레미콘 납품량에 맞춰 리베이트 비율을 정하거나 납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시공사와 계약한 배합비와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납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이 입까지 막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도심을 뒤덮은 15일 광주시 남구 주택가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길을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금괴 중계 밀수 주범에 1조3천억원 벌금 '역대 최대'

2조원대 홍콩 금괴 4만개 한국공항 거쳐 일본 반출 혐의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법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씨

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내렸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시세 차익만 40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 321개, 시가로 2조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